

1. 예수께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셨을 때의 일입니다. 이미 아시는 바처럼, 예수의 사마리아 통과는 의도된 행보였지요. 거기에는 예수께서 찾으시는 잃은 양 한 마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12만 여명의 니느웨 사람이 있었는지도 모르지요. 그 목적이 아니었더라면, 유대인인 예수가 사마리아로 들어갈 일이 없는 것입니다.
2. 사도요한은, 사마리아 지방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라고 했습니다. 그곳은, 우리와 유대인의 상식에 따르면,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상식을 기록하는 사도 요한께서는, 여기에 이런 설명을 덧붙이시지요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다**(요 4:5).”
3.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겔’이나 ‘수가’ 같은 마을 이름은, 우리에게 마치 ‘개성’이나 ‘평양’과도 같은 이름들입니다.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그리고 그 땅이 누구의 소유인지도 분명했지요. 그러나 무섭기 보다는 더러워서 피하는 곳이었습니다.
4.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그의 복음서에 기록하면서, 수가성은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라고 덧붙였지요. 이것은, 누구의 땅이냐는 문제보다는, 요셉이 야곱의 아들임을 강조하고 싶은 말인 것입니다. 예수의 사마리아 수가성 방문에 무언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이지요.
5. 8절을 보시면,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라”**라고 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선생을 따라 역지로 들어온 동네입니다. 유대인이었던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곳은 마치 변소간 같은 곳이지요. 그런데 그들이 우물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 동네까지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거기에서 먹을 것을 사기 위해서….
6. 그 사이에 예수께서는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수작을 거시지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란, 제자들이 우물가에라도 머물러 있었더라면, 그런 일은 그들의 몫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동네에 들어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예수께서 친히 사마리아 여자를 떠맡게 되었다는 뜻이지요.
7. 그래서, 이런 것을 기록한 요한복음이란, 또는 성경이란, 이러한 상황전개가, 어느 한 여인을 구원하시려는 예수님의 작정과 의도와 오버랩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 세상의 사건과 하나님의 뜻이 뒤섞여 있습니다. 우연과 필연이 공존하지요. 그러나 그 속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의도, 그 뜻을 밝혀 내고 있는 것입니다.
8. 조금 뒤로 넘어가서,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라고 했습니다. 평소라면 그들이 그렇게 했을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하는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9. 여기에 정작 더 이상한 것이 하나 있다면, 그 무언가의 일을 그 제자 중 하나인 요한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분명 그 역시, 사마리아까지 따라 들어왔고, 또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 가고 싶지 않았던, 수가 동네까지 깊숙히 들어갔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대화를 기록한단 말입니까?

10. 항간에 떠돌던 이야기를 사도 요한이 수집했다가 사마리아를 통과하던 사건에다가 붙여 넣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 입으로, ‘너희들 없는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노라’고 실토한 것도 아니겠지요? 추측하자면, 구원을 받은 그 여인과 또 그 여인으로 인해 예수를 믿게 된 그곳 사람들의 증언을 그가 들었을 것입니다.
11. 그렇게 해서, 이 전체 요한복음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겠습니까? 비유하자면, 제자들은 보냄을 받았으나, 정작 사마리아 사람을 추수하시는 분은 예수라는 것이지요.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그 마을로 보냄받은 자가 있고, 또 보내는 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추수를 위해 보냄 받은 자들 중에는 제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한 그 수가성 여인도 있다는 말이지요.
12. 3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13. 사마리아로 가시기로 마음 먹으신 분은 예수이십니다. 수가성에 들어가 우물을 찾으시는 분도 예수이시지요. 그리고 상종치 못할 한 여인에게 수작을 거신 것도 예수이십니다. 그래서 정작 잃어 버린 한 어린 양을 찾으시는 분은, 제자가 아닌 오직 예수이신 것입니다. 추수의 주인은 예수이십니다. 그러나 그 일에 제자들은 추수꾼으로 보냄을 받지요.
14. 어떻게 예수께서 그 여인과 접촉하시고, 어떻게 만남의 기회를 만들고, 무슨 이야기로 그녀를 설득하고 감화시키는지, 우리가 익히 배워서 아는 바입니다. 그녀에게 물 이야기로 시작해서, 남편 이야기를 들추시지요. 그리고 결국은 그 더러운 자에게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15. 이때, 그 예배, 곧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란, 사마리아나 예루살렘 같은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자녀로서 드리는 예배이지요.
16. 모르는 것에게 비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도 아니지요.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난다는 말은,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제사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란, 예배자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의 사이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회복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7. 아마 그 때문에, 사도 요한이 수가성 우물가를 말할 때, 굳이 그곳이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또 21절에서 예수께서,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예배할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라고 말씀하신 이유이기도 하지요. 삼촌이 아닌!
18. 이방인보다 못한 자들, 개같은 자들, 약속에서 제외된 자들이 그의 자녀라는 거룩한 신분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노래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밴딩머신으로 생각하고, 복을 주는 기계로 찾는 것이 아닌, 내 아버지로 부를 때가 있지요.
19. 그러니까 이미 이 여인은 예수님과 물을 가지고 옥신각신 할 때부터, 하나님은 그녀를 자기 자녀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남편을 데리고 오라는 예수의 말에, 어느덧 진실을 말해버리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 뿐이지요. 무슨 자기 자신? 예수를 진정한 자기의 남편, 바알로,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자기 자신, 그래서 그녀는 사마리아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로 삼기로 작정한 자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20. 29절을 보시면, 이 여자가 동네에 가서 떠드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 여인이 온 동네에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소위 추수꾼으로서 자기와 동일한 신분회복과 구원으로 불러드리는 일이지요.

21. 그러니까, 당시 그 동네에는 2 종류의 추수꾼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는 그 여인이고, 다른 하나는 음식을 구하러 다니는 예수의 제자들. 여기서 예수는 그 여인을 “거두는 자”로 부르시면서, 그가 이미 샅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2. 그리고 제자들은 그녀와 함께 즐거워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녀는 노력하였고, 제자들은 그녀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구원하시고, 우리들은 그 기쁨에 초대받는 것이지요.

23. 사마리아에 이들을 유하셨을 때,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고(41절). 제자들의 전도가 아닌, 예수의 말씀이 믿음을 주는 것이지요. 여기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24.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니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 앞에 펼쳐진 광경이란, 유대인으로서 도저히 납득이 안되는 장면이었지요. 사마리아 사람과 함께 있다니…!

25. 그러나 곧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갑자기 동네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우물가로 나오는 것입니다. 무슨 장면이겠습니까? 어느 한 여인이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을 전파하러 나가서, 추수하는 장면이지요.

26. 이때 예수께서는 그것이 바로 자기의 양식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이 구해온 음식이 아니라, 한 여인이 변화되어 추수꾼이 되어 나가는 그 일! 그것이 하나님의 양식이지요. 우리에게 적용해서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이 사실을 우리 주변에 널리 선전하고 전파하는 일입니다.

27. 그랬을 때에 예수님은 그들의 노력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되놈이 번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녀를 구원하시고, 우리는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요 3:29)”**